

전남교육청, 교육기부 모델학교 2곳 운영

장흥 관산초'전통놀이'·신안 안좌초'벽화그리기' 선정 현판식 및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참여, 한지 공예 체험

전라남도교육청이 한국과학창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기부 모델학교를 운영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장흥 관산초등학교에서 교육기부 모델학교 현판식 및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참여하는 한지 공예 체험을 실시했다.

교육기부 모델학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산하의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와 시·도교육청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교육기부 자원을 연계해 지역별, 학교별, 학교급별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장흥 관산초(전통놀이 체험), 신안 안좌초(벽화그리기· 27일 현판식 진행) 등 2개

학교가 모델학교로 선정됐다. 이날 장흥관산초 현판식 행사는 교육기부 모델학교 추진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다중이인형 공예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와 협약을 맺은 다중이인형연구소가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을 지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분야인 다중이인형 공예를 자녀의 학교에서 함께 체험할 수 있어 추억 하나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말했다.

전미 관산초등학교장은 "교육기부 모델



교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뿐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교육기부와 관련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여수 죽림초, '찾아가고 초대하는 문화공감' 프로그램

여수 죽림초등학교 지난 20일 본교 강당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찾아가고 초대하는 문화공감' 프로그램으로 '전통, 소통, 신동'연희로 통하디의 연희집단이다 단체를 초청하여 전통예술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연희집단하디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는데 학생들의 문화적 시각을 넓히고 전통예술 공연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죽림초 3-6학년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졌다.

연희집단하디 단체는 풍물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복합예술 장르의 작품을 창작하여 풍물이 지닌 가치를 확산하고 풍물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한 전통연희 그룹이다.

이번 공연에는 우리의 깃발 만들기, 풍물놀이, 구정놀이, 소리판, 백호놀이, 용기놀이, 대동놀이 등을 학생들과 함께하며 국악에 대한 이해와 전통예술에 대한 즐거운 경험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여수=김현근기자



보성교육청, '차와 함께 하는 판소리 체험' 실시

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초등학교 및 교육행정직을 대상으로 '차와 함께하는 판소리 체험'을 실시하였다.

보성교육지원청은 전통예술거점점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예술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편적이고 향유하는 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차와 함께하는 판소리 체험은 보성 관내 초·중등 교원 및 보건교사,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4회기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차와 함께하는 판소리 체험'에서 백종숙 강사님의 다도체험과 서정미 한국예총보성지회장님과 함께 '사랑가', '동해바다' 등 남도민요를 즐겁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성교육지원청 전희 교육장은 "우리 지역의 전통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함평교육청, 미래변화 대응 교육과정 운영 위한 유치원 교사 연수

관내 유치원교사·방과후과정 기간제 교사 대상

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관내 유치원교사 및 방과후과정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연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강화 및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사들의 마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연계 교육활동의 모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수업과 평가가 일관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문해력과 실행력을 높이고, 이어서 도자기에 좋아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생활소품을 만드는 마을학교'이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취감을 높였다.

연수에 참여한 선생님은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기에 미래 유아교육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었고, 평소 경험하기 힘든 도자기 핸드페인팅을 체험하며 마을학교 프로그램의 이해



및 마을연계 교육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연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교육청, 관리자·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 실시

무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리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공유하고자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에 대한 법률 안내', '학교폭력 불복절차 바로 알기'를 조세미 변호사를 강사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무안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즐거움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새꿈키움평화교실, 찾아가는 학교폭력에 방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무안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에 방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구례교육청, 2022. 구례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개최



구례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소재 지리산호수공원 오토 캠핑장 일원에서 구례 관내 다문화가족 300여

명인 다문화가족 300여 명 참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의 문화교류 및 다양한 문화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2022. 구례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구례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은 구례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하게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건전한 공동체 의식 강화와 화합을 주제로 하여 구례군 가족센터와 연계 행사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 18일에 체험마당(구례

군가족센터의 다과 나눔, 지리산C 협동조합의 '머그프레스' 체험, 사성암 '연꽃등 만들기' 체험, 풀잎 문화센터의 '타라이트' 체험 등)과 가족 소통 증진을 위한 놀이마당(OX퀴즈, 명랑운동회,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었고, 저녁부터 19일 아침까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글램핑 체험(TV, 침대, 화장실 구비)과 캠핑 체험(텐트, 매트, 침낭, 코펠, 테이블, 의자 등 구비)을 진행하여 지역민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구례=박진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